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농업애충과

딸기의 해충

이른봄에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딸기의 해충에는 잎을 갉아먹는 딸기잎벌레, 검정날개거위벌레, 민달팽이류, 잎이나 줄기에서 흡즙하는 애뭇털진딧물, 딸기뿌리진딧물, 응애류, 꽃에 가해하는 딸기꽃바구미등이 있다.

딸기뿌리진딧물 (매미목: 진딧물과) *Aphis forbesi* Weed

약충과 성충이 땅가 부위의 줄기와 뿌리의 상부에서 흡즙가해하여 생육이 불량해진다. 개미와 공생하며 개미에 의해 가해부위가 흙으로 덮여있어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 3~4월경부터 피해가 시작되어 건조한 초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피해받은 작물은 생육이 불량해지고 심하면 말라죽는다. 성충은 1.5mm 정도이며 오이에 발생하는 목화진딧물과 비슷하다. 몸은 광택이 없는 짙은 녹

색이며 약충은 녹색을 많이 띤다. 연중 딸기에 가해하며 알로 잎자루의 털에서 월동한다. 이른봄에 부화한 간모가 어린잎에 가해하며 무시형 암컷을 낳고 증식한다. 9~10월경에 묘판에서 뿌리에 가해한다. 날이 추워지면 날개달린 수컷이 출현하여 교미하고 알은 잎뒷면에 2~4개씩 산란된다. 시설내에서는 겨울에도 태생암컷이 보이며 축성재배에서는 1~2월에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애뭇털진딧물 (매미목: 진딧물과) *Chaetosiphon minus* (Forbes)

약충과 성충이 딸기 잎 뒷면의 잎맥 주위에 무리지어 흡즙가해 하는데 외국에서는 모자이크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몸은 연한 황록색이며 등면과 머리 윗부분이 옅은 갈색이다. 날개가 있는 경우에는

다리가 몸과 같은 색깔을 띠나 없는 경우에는 갈색을 띤다. 알로 월동한다.

딸기잎벌레 (딱정벌레목: 잎벌레과) ***Galerucella grisescens* (Joannis)**

유충과 성충이 봄, 가을에 잎 뒷면을 식해한다. 성충은 4mm 정도이며 황갈색을 띠고 등쪽에 황색 잔털이 많이 나 있다. 배 아랫면은 검은색이지만 배끝은 연한 색이며 겹눈은 흑갈색이다. 더듬이는 몸의 1/3 정도로 길며 실모양이다. 앞가슴 등판 중앙부에는 흑갈색의 용기부가 있다. 유충은 원통형이며 머리는 길은 갈색이고 몸은 황색 바탕에 털이 많다. 성충으로 마른 포기에서 겨울을 난 후 봄부터 잎을 갉아먹는다. 4월 중순 이후 산란하며 1~2주후 부화한 유충이 잎을 갉아먹는다. 약 1개월간 유충 기간을 지나다 번데기로 약 1주일을 경과하고 5월경부터 성충으로 우화한다.

딸기꽃바구미 (딱정벌레목: 바구미과) ***Anthonomus bisignifer* Schenkling**

노지에서 딸기꽃이 필 때 성충이 꽃대나 잎자루를 절단하는 피해를 준다. 일부 꽃은 꺾어지지 않고 유충에 의해 내부에서 식해당한다. 성충은 3mm 정도의 작은 바구미로서 몸은 흑색이고 군데군데 흰 반점이 있으며 회색의 잔털이 뽁뽁이 나 있다. 머리는 작고 주둥이는 길며 겹눈은 크다. 가슴은 양쪽이 둥근 사다리꼴이고 앞날개 후반부 측면에 짙은 갈색의 큰 무늬가 있다. 유충은 통통하고 옆구름이 많으며 배쪽으로 굽은 C~자 모양이다. 성충으로 마른 풀이나 낙엽 밑에서 월동하다가 개화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월동성충은 4월 하순~5월 중순에 가장 많이 산란한다. 부화한 유충은 꽃속에서 꽃밥을 먹으며 2~3주간 성장한 뒤 번데기가 된다.

검정날개거위벌레 (딱정벌레목: 거위벌레과) ***Apoderus erythrogaster* Vollenhoven**

머리가 거위처럼 특이하게 앞쪽으로 길게 나와 있는 해충이다. 성충이 잎 뒷면에서 엽육을 갉아먹다가 5~6월경 잎의 일부를 잘라 원통모양의 요람을 만들고 안에 알을 낳는다. 딸기 이외에도 밤나무, 졸참나무 등에 발생한다. 성충은 4~5mm이고 광택이 나는 흑색 바탕에 배와 다리는 적갈색 또는 흑색이다. 요람은 직경 3~4mm에 길이 10mm 정도이며 산란된 알과 유충은 열은 황색이다. 연 1~2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5월경에 성충이 많이 목격된다. 발생밀도가 낮으므로 요람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딸기잎선충 (참선충목: 잎선충과) ***Aphelenchoides fragariae* (Ritzema)**

길이 1mm 정도의 작은 선충이다.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해충에 의한 피해보다는 바이러스나 생리적 장애로 오인하기 쉽다. 대부분 싹눈 부분, 특히 생장점 중심부에 많이 분포하며 조직속으로 침입하여 내부기생한다. 냉이, 개쑥갓, 백합 등 250여종의 식물이 기주로 알려져 있다. 피해를 받으면 잎자루가 경화하고 잎이 비틀리거나 주름이 지는 등 기형이 된다. 잎의 털이 없어지고 거칠어지며 짙은 녹색으로 변한다. 모주에서 발생하는 자묘간에는 마디 사이가 짧아진다. 심하게 가해받으면 생장점이 말라죽어 측아가 많아지므로 미니리병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주로 포복지에 의해 전파되며 물에 의한 이동은 매우 적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전한 어미포기에서 어린모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장 주위의 잡초 방제를 철저히 하고 침수에 주의해야 한다. **농약정보**